

지역 소식통

부안군, 제11회 부안마실축제  
순금 동종 당첨자 전달식 진행

부안군대표축제공진위원회(위원장 김중문)는 제11회 부안마실축제에서 (주)참프레, (주)DHL 로벌이 후원하는 '황금 동종을 선물합니다' 특별 이벤트에서 행운을 거머쥔 당첨자들에게 순금 동종 경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황금 동종을 선물합니다'는 부안군 국보 제1호로 승격된 부안군 내소사 고려동종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기업의 후원을 받아 약 1000만원 상당의 순금 동종 2개를 제작해 부안군 관내 1명, 관외 1명 총 2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순금 동종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부안마실축제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이다.

지난 6일 제11회 부안마실축제 폐막식에서 진행된 '황금 동종을 선물합니다' 경품 추첨에서 관내 당첨자는 (주)참프레 조성욱 상무가 추첨을 통해 김모씨(부안군), 관외는 (주)DHL로벌 이정권 회장이 추첨을 통해 허모씨(경기도)가 각각 당첨의 행운을 얻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유해 야생동물로  
부터 시민 보호 총력

정읍시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시 조례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정읍지역에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최대 500만원과 장례비용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4월 12일 정읍시 하모동 580번지 인근 하천에서 신모(80)씨가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검지손가락을 살모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었다. 신씨는 전주의 한 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큰 이상 없이 현재는 부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시는 신 씨가 지출한 병원비 약 300만원을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바이오산업 유치 기원"

이학수 시장,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위해 범행정적 차원에서 뒷받침"

아시아의 바이오 산업 메카를 꿈꾸는 정읍시가 정부의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선정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여정에 힘을 실기 위해 전 시민

의 뜻을 모아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직원들은 '전북바이오특화단지 유치 기원'과 '정읍을 바이오 산업 허브로 육성'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카드를 들고 색션 퍼포먼스를 펼치며, 전북자치도의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강력한 열원에 힘을 보탤다.

정부는 오는 6월 말 바이오특화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

자치도와 정읍, 전주, 익산 또한 결정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업유치 및 투자협약, 펀드 조성, R&D 지원 등 막바지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세부 담판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바이오 산업의 핵심 축인 정읍-전주-익산을 연계한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각 시의 바이오 강점(△정읍 중개연구·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 △전주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 산업화 촉진지구 △익산 글로벌 인체·동물 바이오 생산 지구)를 고도화하는 벨류체인 조성 방식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와 도 정책에 맞춰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시 소재 R&D 혁신기관의 신약후보물질 전임상 효능검증 및 비임상 독성안정성 검증 기술력에 기반한 신정동 첨단산업단지 일대를 신성장동력 바이오 산업단지로 키우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퍼포먼스가 전북자치도가 걸어가는 큰 도전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범행정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고창군,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교육 진행

### 농·어촌 인력난 부족 해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7일 문화의전당에서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환영식과 근로자 의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나철주 농어촌산업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현재 고창군에선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을 포함한 1,500명이 임업, 280농가에 배치돼 일손이 부족한 고창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에선 근로자 준수사항, 인권 보호, 농작업 안전 요령과 법적 사항, 무단이탈 예방 교육, 계절근로자를 위한 정책 등 계절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에게 필요한 인력을 단기 고용할 수 있다는



고창군이 27일 문화의전당에서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환영식과 근로자 의무 교육을 진행했다.

점에서 농가 호응이 크다. 근로계약 기간은 기본 5개월이며, 농가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향후 재입국 요청도 가능하다. 특히 선운산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농가

에서 만족도가 높다. 또한 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워 주기위해 언어 책자와 작업용 옷을 전달했다. 고창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첫해인 2022년 300여명에서 2023년 600여명, 올해 1,500명으로 매년 2배씩 늘고 있다.

/고창=김영성 기자

## 중국 국제 선사·여행사 부안 방문

### 부안군, 크루즈 관광 여건 검토

중국 국제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가 지난 23~24일 부안군과 전주시 한옥 마을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중국 크루즈 관계자들은 후인칭 청도시 크루즈포럼 조직위원장, 투광위엔 중국 블루드림크루즈 총경리, 쑤후이 취나완 여행자문공사 총경리, 루안페이 취나완 여행자문공사 크루즈 사업부 총경리 등 4명이다.

블루드림크루즈는 부안에 기항의사를 밝힌 국제 크루즈 선사이며, '블루드림 멜로디'라는 4만2,000톤급(수용 승객 1,266명) 크루즈 선으로 부안 기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직접 크루즈 선을 부안에 기항하는 당사자인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안전 여건, 항구 인프라, 텐더링 소요 시간 등을 주로 검토했다. 함께 부안을 방문한 취나완 여행자문공사는 크루즈 관광 플랫폼 판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여행전문 회사다.

중국내 크루즈 관광 여행상품을 꾸리는 입장에서 관광기간 이동시간, 관광요금, 체합가격, 식사 등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부안과 전주의 관광여건이 우

수한 편이며, 크루즈 모박지로부터 격포항까지 텐더링 항로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관익현 부안군수는 지난해 8월 28일~29일, 제11회 중국 국제 크루즈 회담에 참석해 부안 격포항-궁항 중심 한국형 칸쿤 비전과 중국-서해안을 연결하는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를 통한 상생 전략을 제안하는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기조연설은 중국 크루즈 선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난해 10월 중화태산 크루즈 및 선사 관계자들이 부안과 전북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5월 블루드림 크루즈 및 여행사 관계자들이 부안을 방문한 것이다.

특히, 중국내 여행상품을 꾸리는 여행자문공사의 부안 방문은 부안군에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가시화하는 상당한 실무적 진척이 진행된 상태라고 풀이된다. 이들은 지난 23일 전북 최대 관광지인 한옥마을에서 팸투어를 진행한 뒤, 24일은 부안군청을 방문해 '부안군-블루드림크루즈', '부안군-중국국방크루즈경제연구원-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KIC)-취나완여행자문유한공사' 간 크루즈 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부안 기항여건을 시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호응

정읍시가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명의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역을 조회해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20명의 시민에게 3362필지 4.2㎢의 땅을 찾아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소유 토지내역을 모르는 시민에게 무료로 본인 명의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

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고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에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조회 시 대상은 2008년 이후 사망한 자(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확대간부회의 개최... 공약사업 및 주요현안 점검

정읍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공약사업과 부서별 추진 현안 업무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실과소별 다양한 현안과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과 보완사항을 지시한 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정읍문화관 건립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내장저수지 주변 생태 공원화로 힐링도시 조성 △구 도심권 도시광장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산지소(地産地消) 공동체 협동조합 운영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과, 이월사업은 재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이행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제안사업은 사장되지 않도록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